

2026 01
통권 309호

티온

안동교구 사람 사는 이야기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contents

- 01 2026년 교구 실천사항
- 02 2026년 교구 실천사항 -이달의 실천사항 2p
- 03 소공동체 기도 3p
- 04 반모임 길잡이 4p
- 05 복음 말씀(마지막 주일) 5p
- 06 말씀 길잡이 6p
- 07 질문하는 신앙, 성찰하는 삶 8p
- 08 대안적 삶을 찾아서 10p
- 09 가톨릭 농민분회 이야기 12p
- 10 우리 생명 이야기 14p
- 11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 16p
- 12 건강한, 신앙생활 18p
- 13 교구 신앙의 역사 이야기 20p
- 14 소개합니다 – 교구역사관 22p
- 15 교구 소식 24p
- 부르심**
- 17 사제의 단상 26p
- 18 신학교에서 온 편지 28p
- 19 그분과 함께 30p
- 20 알림 32p

틔움

'틔움'은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과 사랑의 씩을 틔우고
열매 맺도록 도움을 주는가까운 벗이 되고자 합니다.

펴낸곳 천주교 안동교구사목국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전화 054.858.3114
홈페이지 <http://www.acatholic.or.kr>

표지 글·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작가

2026년 실천사항

교구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 돌봄가 양성 프로그램 실행
- 위기의 영혼 방문

본당

하느님의 집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 '성령 안에서 대화' 방식 이용
- 취약 가정을 위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

사제

동반자이자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 찾아가는 사목
- 아픔 경청

평신도

서로의 벗이 되기 위하여

- 먼저 다가감
-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작은 돌봄 실천

다가감

경 청

돌 봄

- 위 표를 참조하여 본당별로 실천사항을 설정하셔도 좋습니다.



다가감 · 경청 · 돌봄의 실천

1. 새해 축복의 인사 나누기

〈다가와 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기〉

2. 충고보다 칭찬하기



지구를 살리는 나의 실천

1.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20도)

2. 먹을 만큼 조리하여 잔반 줄이기

■ 다가감, 경청, 돌봄의 실천과 지구를 살리는 나의 실천을 실천하신 후 체크하시면 됩니다

“함께 걸으며 복음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느님,
당신의 자비를 본받아
저희도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소서.
무심함과 거리감을 넘어 마음을 열고
외로운 이들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게 하소서.

삶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신 예수님,
저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참된 경청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쁨에는 함께 웃고, 슬픔 앞에서는 곁을 지키는
진정한 벗이 되게 하소서.

새 힘을 일으키시는 성령님,
돌봄이 미치지 못해 어려움 속에 머무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어,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의 품으로 이끄는
참된 돌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관계의 회심을 살아 복음의 생명력을
새롭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복음 7단계

1단계 (기도)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관계의 회심을 위한 기도(3쪽)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2단계 (독서)

“어느 분이 복음 말씀(5쪽)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읽은 후)
“다른 분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묵상)

잠시 침묵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합시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단어, 혹은 구절)에 맡출을 긋습니다. (3분)

4단계 (선포)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두 번씩 말합니다.

5단계 (나눔)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말씀’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눕니다.

6단계 (활동과 실천)

1.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2. 본당 소식 및 기타사항을 전달합니다.

7단계 (기도)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는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 복음 말씀(연중 제3주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2-17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래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복음 말씀에 대한 해석 – 말씀 길잡이(6쪽)

나를 따라오너라

함원식 이사야 신부 / 농은수련원 원장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래아 지방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즈불룬과 납탈리 지파의 영역으로서, 이사야 예언자가 메시아가 활동할 곳으로 예언한 곳입니다(이사 8,23-9,1).

그런데 갈릴래아 사람들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유럽이 교차하는 길목에 있는 데다, 풍부한 수자원과 비옥한 토지가 있던 탓에 늘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고, 결국 이사야 시대에는 아시리아에 정복되어 많은 사람이 니네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2열왕 15,29).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여러 번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반란이 일어났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대학살로 끝났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곳에 메시아가 오셔서 해방을 이루리라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해방은 정치적 해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영적인 해방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실 정치적 해방자로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대를 이끌고 독립전쟁의 선두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예수님 죽음의 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보다 더욱 근원적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말입니다.

그리고 갈릴래아가 유다인과 다른 민족들이 뒤섞여 사는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명을 시작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만민을 해방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할 첫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종종 예수님 시대의 어부들이 가난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생선이 올리브기름, 빵과 더불어 유다인들의 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생선을 배달하는 ‘물고기 문’(느헤 3,3)이 따로 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어부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래아의 대표적 어촌인 벳사이다 유적에서 발견된 가옥들의 규모가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게다가 카파르나움의 베드로 집터는 인근 다른 집터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 첫 제자들은 앓을 것이 없어서 쉽게 예수님을 따라나선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살아내는 신앙

정희완 사도 요한 신부 / 가톨릭문화와 신학 연구소

살짝 슬픈 현실이지만,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내 생이 언젠가 종착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감이 확연히 다가올 때, 두려움과 막막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물론 죽음이 소멸과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며, 주님과의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는 신앙의 진리를 믿고 희망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면, 몸이 늙어가는 현상을 지켜보는 것은 조금 쓸쓸한 일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새날의 시작을 기대와 기쁨의 마음으로 맞이하기보다는 아쉬움과 서러움의 정서로 맞이합니다. 노화와 죽음이라는 미래를 향한 여정에서 담담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잘 늙어 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신앙의 위로, 신앙의 기쁨, 신앙의 힘을 거듭 생각합니다. 막막한 이 이승의 여정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총임을 어렵잖이 깨닫습니다.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제 신앙이지만, 신앙의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신앙이 기쁨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신앙 그 자체가 하느님의 선물이자 은총입니다.

또 한편으로 신앙은 주님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해 당신을 열어 보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신앙입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당신을 열어 보이시는 주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는 일입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과 함께 걷는 일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아는 일, 주님을 체험하는 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신앙은 성경과 교리를 통해 주님에 대해 아는 일, 성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 일상에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일, 그 모두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믿음)은 얇과 체험과 삶을 포함합니다. 신앙은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일,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신앙은 무엇보다 살아내는 일입니다. 성경과 교리를 배우고 익혀 주님에 대한 얕을 쌓고, 성사에 자주 참여하여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늙어 가는 지금에서야 조금 깨닫습니다. 주님에 관해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성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총인지, 주님과 함께 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함께 행복하기 위한 대안적 삶

변태석 요한 보스코 회장 / 가은성당 성유 공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려 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커뮤니티 전문가인 미국의 「세실 앤드류스」는 진정한 행복을 부르는 네 가지 요소로 소통(관계), 유쾌, 소명, 통제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소통(관계)’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가족, 친구, 이웃 등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맺는 사회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도시에 모여 사는 현대인들은 30~40% 정도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삶을 이겨나갈 힘을 가지는 것에는 공동체 활동을 통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 취미공동체, 사회공동체 등의 활동을 하는 횟수가 정신건강의 중요한 변수이며, 사회적 관계(공동체 활동)가 탄탄한 사람일수록 질병에 덜 걸리고, 덜 우울하고, 인생을 더 많이 즐긴다고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더 인간에게 유해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유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즐거움이 많아야 일을 할 때에도 힘이 덜 들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즐겁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삶이든 좋은 일만 이어질 수 없습니다. 긍정과 감사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인 회복탄력성을 키워 줍니다.

세 번째가 ‘소명’입니다.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와 목적을 부

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복해지려면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을 잘 건사하는 것도 하나의 소명이지요. 우리 어머니는 올해 100세입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학교에 다니면 아이를 망친다.’며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학교를 못 다녔고 사회생활의 폭도 좁았습니다. 하지만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6남매를 건강하게 잘 키워서 자랑스럽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님에게는 ‘가족들과 집안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소명 의식을 가질 때 더욱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네 번째가 ‘통제’입니다. 타인과 함께 공동체를 잘 가꾸며 살기 위해서 절제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욕구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만족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닮고자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신앙적 책무가 있습니다.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 소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달란트를 나누고, 공동체의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느끼며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것이 신앙인의 행복이겠지요.

땅을 일구며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

안영배 사도 요한 신부 / 전국 가톨릭 농민회 지도 신부

안동교구는 창립 초기부터 척박한 농촌 현장의 아픔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농민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자 힘써 왔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태동한 가톨릭 농민회는, 단순한 직능 단체가 아니라 **‘땅과 생명, 그리고 사람을 함께 돌보는 공동체’**라는 정신을 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걸어왔다. 교회의 사회교리가 말하듯,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땅에서 나는 열매는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안동 교구 가톨릭 농민회는 바로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이들의 모임이다.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면서 산업화를 위한 저곡가 정책으로 우리 농업은 파탄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탈농 도시화가 불붙던 시절 경북 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창립된 안동교구는 초창기부터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삼게 되었다. 사목국 내에 농민사목부를 설치하고 공소와 마을을 방문하여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 가톨릭농민회의 창립(1978년12월27일)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분회(공소 또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가톨릭 농민회의 기초 조직)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활동은 농민들이 스스로 농업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함께 실천할 과제를 찾으며 농민의 권리와 농촌 사회 민주화를 향한 것이었다.

70~80년대 우리 사회 농민운동의 중심이었던 한국 가톨릭농민회는 90년대에 들어 전국농민회연맹을 출범시키며 생명공동체 운동을 활동의 중심으로 삼게 된다. 이에 따라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회는 화학적 농법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순환 질서를 존중하는 생명농업을 실천해가면서, 이 운동을 체험과 나눔 등의 도농교류로 이어가 도시의 소비자들이 농업과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연대를 넓혀 왔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더 넓게 실현하고자 지역의 친환경 학교급식과

지역민 식생활교육, 로컬푸드운동에 이르기까지 활동을 넓혀왔다.

안동교구의 농민사목은 이 시대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인 농민들과 함께 살아온 복음의 실천이며 가난한 이들을 향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실현한 역사이다.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한 복음화를 향한 여정이었다. 또한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회가 실천해온 생명공동체 운동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강조하는 생태적 회심을 이미 실현해온 것이며, 안동교구가 추진해 온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과 맞닿아 있다.

이제 안동교구 월간지는 각 지역 분회의 구체적 삶과 이야기를 매월싣고자 한다. 안동교구의 농민사목,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은 분회라는 기초조직을 통해 뿌리내리고 확산되어 왔다.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온 농촌의 현실 속에서도 경제성만 아닌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인권을 지키고자 애써왔던 길, 공동체적 질서로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했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가톨릭 농민회는 반 세기를 넘어선 안동교구의 역사 속에서 늘 농민들과 함께 걸어왔다. 농업 붕괴와 지역 소멸, 생태 위기라는 위협이 우리를 짓누르는 시대, 생존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 농민회의 정신은 여전히 단단히 살아 있다. 생명을 지키고 공동선을 위해 일하며, 땅의 희망을 다시 일구는 영성-이것이 안동교구 농민회가 우리에게 남겨 주는 가장 값진 유산이다. 앞으로 이어질 각 분회의 이야기들이, 우리 교구가 농촌과 함께하는 교회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더 깊이 연대하여 위기를 극복하여 희망을 말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속 가능한 지구의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한 길 29 - 핵발전소 없는 세상 만들기 4 -

김시영 베드로 신부
합창 본당 주임,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핵실험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옛 소련은 1990년, 중국은 1996년을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뜯금없이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실험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핵실험을 재개하도록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러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핵실험 준비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핵 군축 협정인 ‘뉴스타트 조약’의 올 2월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선언은 강대국 간 핵 군비 경쟁에 다시 불을 끼울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도 뒤따를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경쟁국들의 핵 능력만 키워주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과거 핵 억제력을 내세워 경쟁적으로 수천 기의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여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국과 구소련이 마침내 1979년 스리마일 핵발전소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일본 또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로 인류를 다시 충격과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불과 40여년 만에 벌어진 이 핵사고들은 인간과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가한 몹쓸 짓이자 폭력입니다.

1.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만들어진 고준위 방사능 오염지역 ‘붉은 숲’

붉은 숲이라는 이름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방사능을 소나무들이 흡수해서 붉게 변색 되어 죽어 버리면서 유래한 이름이며, 그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 10km^2 나 됩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방사선 방출량의 20배를 뿐만 아니라 토양, 수질과 대기를 모두 오염시켰습니다. 전 세계 평균 시간당 자연 방사선량은 $0.1\sim0.2\mu\text{Sv}/\text{h}$ 이고, 채굴이 끝난 우라늄 광산도 $1.7\mu\text{Sv}/\text{h}$ 밖에 되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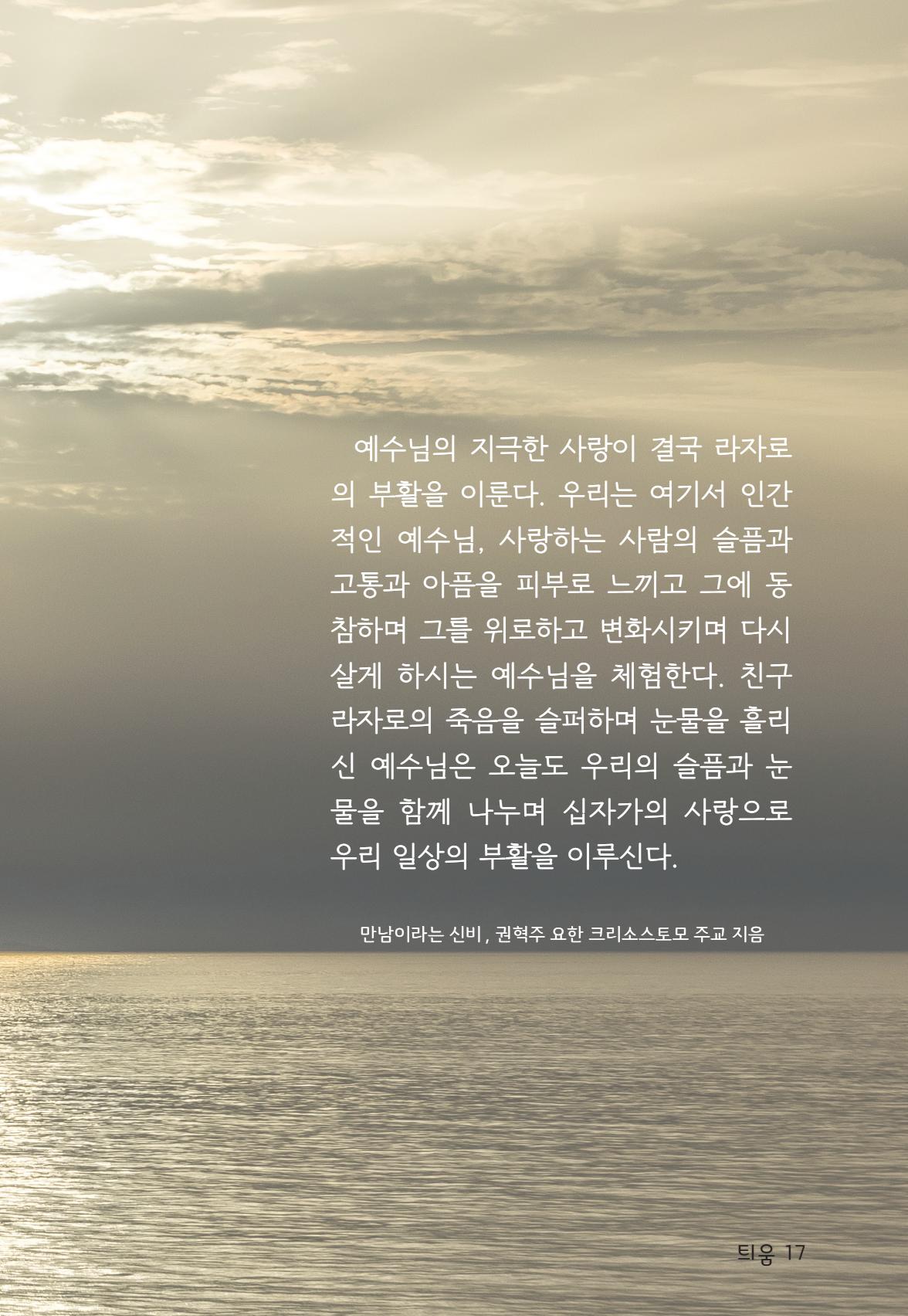
데, 붉은 숲의 토양 방사선량은 지표에서만 $500\sim800\mu\text{Sv}/\text{h}$ 나 됩니다. 하루에 담배 4~5갑씩 1년 동안 피우는 양과 1시간 동안 붉은 숲에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자라나고 있는 나무들은 땅의 방사능을 흡수하여 내뿜고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방사능 오염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사능이 이 지역의 동·식물들에도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붉은 숲의 종의 다양성은 더 늘어났습니다. 원자로 주변은 사람의 이동이 뜸해져 숲이 우거지자 몽골야생말, 황새, 회색늑대, 비버, 사슴, 독수리 등의 멸종위기종이 다량 서식하면서 종이 많아지는 특이한 천연보호구역이 형성된 겁니다. 오염의 90%가 토양에 집중되어 여전히 토양은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은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전쟁이 발발한 후 러시아군이 붉은 숲에 어른 키 이상의 참호를 파고, 먹고 자고 하면서 한 달 동안 방사능 흙먼지를 날리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병사 중 아무도 이 숲이 방사능 오염지역인지 몰랐던 겁니다. 병사들은 약탈품을 보관했다가 러시아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초기에 붉은 숲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러시아군 약 500명이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에 피폭되어 이웃 나라인 벨라루스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중 1주일 만에 사망한 병사도 있었습니다.

2. ‘붉은 숲’의 재앙은 이웃 나라 벨라루스에도 찾아옴

러시아군이 철수하자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을 도왔던 벨라루스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방사능 지대에 노출된 러시아군의 대규모 호송대가 벨라루스에 진입하자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입니다. 붉은 숲의 모든 러시아 장비와 특히 장갑차의 무한궤도에 의해 발생하는 먼지는 위협적인 방사능 덩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붉은 숲에서 오는 러시아 군인과 군용 장비에 접근하지 말고, 물건도 사거나 받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붉은 숲에 있었던 음식, 옷, 벨트, 담배 케이스, 돈 및 기타 품목(특히 금속)은 가장 강력한 방사능을 가진 잠재적인 ‘죽음의 캡슐’(기준치 50배)이 되었던 겁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이러한 품목들도 여러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러시아군이 방사능에 피폭되었는지 짐작도 가지 않는 수준입니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결국 라자로의 부활을 이룬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적인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피부로 느끼고 그에 동참하며 그를 위로하고 변화시키며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한다. 친구 라자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일상의 부활을 이루신다.

만남이라는 신비,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지음

몰라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서

박인수 베네딕도 한의사 / 용상동 본당

한의서 황제내경 영추편에는 ‘질수구 유가필야 (疾雖久 猶可畢也)’라는 말이 있다. “병을 앓은 지가 비록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치료할 수는 있다”는 뜻으로 사람이 병든 것은 마치 몸이 가시에 찔린 것과 같고, 몸이 오염된 것과 같으며, 실타래가 얹히고 강물이 막힌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하여 가시에 찔린 것이 비록 오래되었다고는 하나 뽑아낼 수 있고, 오염된 것은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으며, 실타래가 얹혀있는 것도 풀면 되는 것이고 강물이 막힌 것도 소통시키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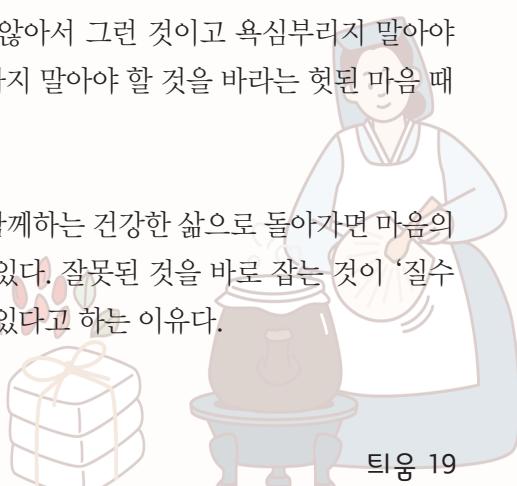
그럼에도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의사가 그 치료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올바른 치료라는 것은 몸에 박힌 가시를 찾아서 뽑아내고, 오염된 것은 씻어내며 마음에 얹힌 실타래는 풀어내며 막힌 강물을 뚫어 소통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니 누구나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서 잘 치료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즉 병이 오래되어 치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법을 몰라서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단지 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병은 어떻게 해야 낫게 할 수 있는가? 먼저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식견이 중요하다. 의사는 환자의 심리적, 사회적 고통과 잘못된 식생활 습관과 외적인 손상 요인이 병을 일으킨 기전을 환자에게 잘 이해시켜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성장 과정과 사회

적 경험 그리고 현재의 생활상태와 고통 정도에 대해서도 경청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환자에 대한 이해와 교감도 중요하다. 그것을 토대로 환자의 질병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적, 사회적 정신적인 고통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의사를 한의학에서는 심의(心醫)라고 하며 최고로 친다.

이런 의사를 만나게 되면 환자는 적극적인 협조로 호응해야 한다. 병의 원인이 된 잘못된 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하고 사회적 제약 요건을 개선하며 심리적 안정을 취하면서 잘 회복되기를 느긋하게 기다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절제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 등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상의 요인들에서 해방되어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상사의 이치를 보면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나 질병들은 해결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안 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 착하게 살면 되는데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쉬면 되는데 쉬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욕심부리지 말아야 하는데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것이고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는 헛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면 마음의 병은 치유되고 육신의 병도 나아질 수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질수 구 유가필야’이고 오래된 병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유다.



“초대 교구장 두봉 주교의 약력과 희망(포부)”-1

신대원 요셉 신부 (안동교회사연구소장)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1846년 순교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한 병인박해가 일어난 지 꼭 180년째 되는 해이다. 이런 해에 특별히 순교자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안동교구 공동체 모든 이에게 감히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루카17,6)으로 교구 공동체를 위해 두 손을 모아 “축복을 내려 주십사”라고 정성껏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려본다.

1969년 7월 25일에 주교로 수품되고, 안동교구 첫 교구장으로 착좌한 두봉 주교의 그간의 약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봉 주교는 1929년 9월 2일에 프랑스 오를레앙에서 태어났다. 1947년 오를레앙 “생 끄로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50년 파리외방전교회에 입회하였으며, 1951년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1953년 6월 9일에 사제서품을 받고, 이듬해인 1954년 한국으로 파견되어 대전 대흥동 주교좌성당에서 10여 년을 보좌로 사목하는 동시에 전국학생회 지도신부,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 대전교구청 상서국장, 대전교구 학생회 지도신부 등을 역임하였다. 1967년 9월 3일부터 파리외방전교회 한국지부장으로 자리하고, 1969년 5월 29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안동교구 설정과 동시에 교구장 주교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969년 7월 25일에 김수환 추기경의 주례로 주교서품식을 받고 신생 교구인 안동 교구장으로 취임하였다.

안동교구의 첫 교구장으로서 두봉 주교의 인품은 이미 대전교구 대홍동 주교좌본당 보좌신부 시절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극히 겸손하고, 겸소하고, 어린이와 같은 순박하고 단순한 성품으로 격의 없이 모든 신자들과 밝은 대화로 학생과 신자들의 영성 지도에 큰 인기를 얻기도 하였다. 특히 일반인들도 대전 MBC 방송의 ‘5분 명상’을 통하여 그의 깊은 신심과 철학에 공감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대홍동성당 보좌 시절엔 추운 겨울에도 난롯불을 피우지 않고, 양말도 신지 않고, 절약하고 극기하는 생활 모습은 이를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1969년 5월 29일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안동 교구장 주교 임명을 받고도 처음엔 겸손되어 사양하였으며, 약 한 달 동안의 기도와 묵상 후에 비로소 주님께 순명하는 삶의 정신으로 주교직을 수락하였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그의 깊은 신심과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인물이었음을 잘 알 수가 있겠다.

두봉 주교는 1969년 7월 25일 교구장 수락 연설에서 “세상이 변할지라도 내 말은 변하지 않을 것”(루카21,33)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므로 우리 다 같이 진복팔단의 정신에 의해서 현세와 후세에서 진복(眞福)을 누릴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다음 호에서도 계속하여 두봉 주교의 사목자로서의 포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안동본당 영세식 사진 (가로 14.2cm 세로 10.7cm, 1959년경)

이 사진은 목성동의 조월묵 젤마노 형제(70세)가 기증한 모친 故 배 유리아나님의 영세식 사진이다. 2004년 철거한 안동 본당(현 목성동 성당)이 십자가형으로 증축(1962년)되기 전 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이다. 2차 바티칸 공의회전 벽면을 향한 제대와 제대위의 꽃과 촛대, 수놓은 천과 휘장을 걸어 올려 장식한 성당 전면의 모습들이 서양식 건축과 첫 만남을 말하는 듯 고색을 띠며 소박하게 전해진다. 또한 2004년 성당을 철거하기 전까지 성당 안 전면에 목성동 성당의 상징처럼 올려두었던 아기 예수님을 안은 성모님과 성요셉 상 그리고 14처 부조가 보인다. 나무 바닥과 반자형 나무 천장은 성당이 철거되기 전까지 그 모습 그대로이다.

당시 정갈한 모습의 한복을 입은 여성과 아이들, 교복에 어깨띠로 영세식 장식을 한 남자 어린이 그리고 양복을 입거나 한복에 갓을 쓴 어른들까지 선한 표정들과 경건한 모습들이 웬지 지금의 우리와는 사뭇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



교구 소식

교구 소식들

■ 제10기 신앙대학졸업-11.26



■ 최양업신부님시복시성기원연극 '길 위에서'-11.29



■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감사의날 행사-12.2



부르심



‘성장의 끈기’보다 ‘성숙의 끊기’

김재형 베드로 신부
교구 홍보·전산 담당

매월 이어지는 신부들의 고정 모임이 있다. 첫째 주는 요나회(교구 사제 모임), 셋째 주는 동기 신부 모임, 넷째 주는 프라도 사제회(영성 모임)다.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으나, 신부들과의 모임만큼은 그 어떤 일정보다 우선순위에 두려 한다. 모임의 성격도, 구성원도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서는 비슷한 경험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오간다.

예를 들어 동기 신부들과 매월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에게 훌륭한 스승이 되어 지혜를 건네기도 하고, 신학생 시절의 어이없는 사건이나 우리만의 비밀(?)을 꺼내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때로는 소홀해진 영적 생활을 돌아보며 서로에게 고해성사를 청하기도 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동기들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에도 변화가 있음을 느낀다. 예전에는 ‘끈기’ 있게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끊기’를 목표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마음이 모인다. ‘성장의 끈기’도 중요하지만, 하느님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성숙의 끊기’가 반드시 필요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나무는 잎을 떨궈야 새봄의 파릇함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벼려야 봄이 온다.

끈기 있게 붙들고 있는 것만이 봄을 맞는 길은 아니다. 온 숲이 새싹을 틔우는 계절에 홀로 황갈색 낙엽이 가지에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풍경일 수 없다. 끊어내지 못한다면, 무엇을 끈기 있게 붙들어야 하는지도 제대로 알기 어렵다. 결국 끈기 있게 찾아야 할 참된 가치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끊기’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나 또한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를 주변 탓으로 돌리고 싶을 때도 있고, 개인의 약함을 이해받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부족한 존재를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분명한 진실이다.

얼마 전, 사제서품 25주년을 맞은 한 선배가 “이제야 신부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았고, 정말 기쁘게 살고 있다”고 확신에 찬 인사를 건넸다. 그 말을 들으며 ‘나도 언젠가 저렇게 고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잘 끊어내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 싶다. 다시 한번, 잘 끊어내며 끈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해본다.

영원한 이웃

김윤성 바실리오
군복무, 주교좌 목성동 본당

군 휴학을 맞이하며 “잘 다녀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떠남’에 머무르곤 합니다. 가족들로부터 떠나는 것, 본당과 교구로부터 떠나는 것, 신학교라는 못자리로부터 떠나는 것, 익숙한 자리를 뒤로하고 낯선 자리로 떠나는 것. 제가 늘 지냈던 공간이 점점 멀어지는 듯해 어딘가 쓸쓸하고 아쉽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다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성화 상본을 발견했습니다. 작은아들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는 그에게 무엇이라 말해주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축복이었을까요. 걱정이었을까요. 돈 씀씀이에 대한 조언이었을까요. 신앙을 고취하는 말이었을까요. 어찌면 작은아들이 인사도 없이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은 자신이 떠나온 곳을 잊고 살아갑니다. 고향을 잊고 아버지를 잊고 집을 잊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을 고비에서 작은아들이 불현듯 떠올린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이 머물던 익숙한 곳, 따스한 공간을 다시 떠올린 작은아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져 한동안 잊고 살았지만, 그에게 아버지는 ‘떠남’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해준 말은 “잘 다녀오라”는 인사가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맞이하러 뛰어나오는 그 순간, “잘 다녀오라”는 인사 말은 객심(客心)에서 희망으로 변합니다. 그 짧은 인사가 누군가의 여정을 응원하는 말이자,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음을 알려주는 위로임을 느낍니다. 자신을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분명 존재한다는 따스함이 담겨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 휴학을 하나의 여행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여행은 ‘돌아옴을 위한 떠남’이기에 안심하고 자신을 내맡길 수 있습니다. 낯선 곳을 향한 선택과 결정에 긴장하기도 하지만,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여행을 앞둔 사람은 그렇게, 떠날 준비뿐만 아니라 언젠가 돌아올 날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돌아올 곳’을 잊지 않겠다는 작은 다짐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건네진 수많은 “잘 다녀와”에 기쁘게 응답할 준비가 이제 야 된 듯합니다.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예비신학생 11월 모임

11월 16일(주일) 교구청 강당에서 예비신학생 11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5명의 신학생들이 성소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교구 청년밴드 ‘어울림’의 찬양이 어우러진 ‘성소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신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신학교 생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신학생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예비신학생 종강미사

12월 14일(주일) 교구청 대강당에서 예비신학생 종강미사가 있었습니다. 17명의 예비신학생과 부모님, 신학생이 함께 모여 2025년 한 해 모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3명의 예비신학생들이 개근상을 받았고, 2명의 신학교 입학예정자들이 합격 축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려는 예비신학생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 릴

1. 부제 서품식

일 시 : 1월 11일(주일) 오후 3시

장 소 : 주교좌 목성동 성당



김정수 그레고리오
송현동성당



이민우 테오플로
봉화성당

2. 2026년 예비신학생 겨울 캠프

일 자 : 1월 24일(토) – 25일(주일)

장 소 : 공문을 통해 공지

3. 초등부 복사단 연수

일 자 : 1월 31일(토) – 2월 1일(주일)

장 소 : 농은수련원

4. 2026년 예비신학생 등록 신청

대 상 : 사제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방 법 : 등록 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공문을 통해 안내 확인.

※ 등록카드 다운 방법

안동교구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 – 안동교구예비신학생등록카드

5. 성소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안동교구 각 본당 매월 마지막 주일 교증미사

매주 수요일 교구청 미사

성소후원 회비 납부 현황

2025년 11월 1일 ~ 11월 31일까지 납부하신 내용입니다.

정성껏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내 본당		타교구 개인		이호숙	10,000	김지은	10,000
가 은	549,000	강윤순	5,000	장준영	10,000	박영신	10,000
계 림 동	1,396,000	권양일	10,000	정재식	50,000	백형숙	10,000
모 전 동	817,000	김건화	10,000	정태진	20,000	송 경	10,000
목 성 동	2,001,000	김경란	10,000	조원준	10,000	신미란	10,000
문 경	379,000	김경란	10,000	최경희	20,000	양수모	10,000
안 계	472,000	김경수	50,000	탁인자	30,000	이길선	10,000
옥 산	760,000	김계형	50,000	황상호	30,000	정옥남	10,000
울 진	1,152,000	김근희	5,000			최은정	10,000
의 성	3,055,000	김길자	50,000	월 모 임 편		현희성	10,000
합 창	168,000	김은경	10,000	강면식	20,000	이영섭	20,000
후 포	523,000	김은경	30,000	설영숙	10,000	나양수	30,000
		김정은	20,000	심재임	20,000		
교구 내 기타		김현정	20,000	이순연	20,000	성 분 도 치 과	
김정현 신부	10,000	김혜경	10,000	정은순	70,000	100,000	
백동수 신부	10,000	박승철	10,000	최금주	50,000		
서동호 신부	20,000	박종대	10,000	호원순	100,000	안 동 신 협	
안영배 신부	10,000	변진의	10,000	황인숙	120,000	100,000	
윤성규 신부	20,000	서효식	30,000				
정양모 신부	100,000	송은옥	10,000	이 길 선 편		은총의 거울 Pr	
정철환 신부	10,000	신옥선	10,000	강명희	5,000	25,000	
문종학	24,000	신용찬	50,000	김중향	5,000		
박정렬	10,000	안안택	10,000	변우경	5,000	정의의 거울 Pr	
서영림	10,000	위은숙	10,000	전정희	5,000	20,000	
이가엘	10,000	이귀호	10,000	황재혜	5,000		
이정두	10,000	이임영	50,000	최인숙	10,000	프린스톤 한인성당	
		이정숙	20,000	권순옥	10,000	1,446,457	

입금계좌안내 - 예금주 : 천주교안동교구 * 입금자명을 꼭 적어주세요!!

(농협) 733-01-254416 (기업) 160-000175-04-194

(신협) 09035-12-001948 (신한) 140-005-570052

(우체국) 703439-01-004207 (지로) 7519989

*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054-858-3114-5번으로 연락해주세요.

하느님이 주신 나의 이름은

김영선 | 192쪽 | 12,000원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은 무엇일까?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여 품으신 꿈, 내 존재 이유와 목적,

내가 선물로 받은 고유한 소명은 과연 무엇일까?

신앙인들이 자신의 참 자아와 고유한 사명을 찾고

참된 자유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경 인물 이야기를 통해 이끌어주는 영성 묵상.

바오로딸은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녀들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전화 054-859-6040 / 목성동 주교좌 성당 입구